

열린신문

2026 vol. 370

MARCH 3월호

 말씀 마주보기

내 발을 바꾸시든지, 내 길을 바꾸시든지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구원받은 이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대표적인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의 앞부분에서 자신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울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죽음의 위협과 절망, 무기력과 공포가 끊임없이 덮쳐왔던 인생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하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초자연적인 역사, 곧 기적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의 집요한 추격, 수많은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개입 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며, 자연 질서를 움직이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기적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방식도 함께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 말씀은 순수하다"는 고백처럼, 하나님은 먼저 완전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견도록 성도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걷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이 훈련의 과정을 '발'과 '걸음'이라는 이미지로 구체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암사슴은 험준한 산악 지형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절벽과 낭떠러지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바닥이 넓게 벌어져 있어, 어떤 지형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발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절벽 같은 인생길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좁은 길이 넓어지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환경의 변화를 뜻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지경 자체를 넓히셨다는 고백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발을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게 하시고 마침내 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비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 신뢰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뜻 안에서 계획된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성진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사무국 편집주간 이성도 최선미 취재팀 김환 신미숙 이숙영 최희주 디자인 디자인집 (02)521-147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방배동 예배당을 거쳐 2002년 4월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회복된 성도가 가정을 살린다/회복된 가정이 교회를 살린다/회복된 교회가 세상을 살린다"는 목회 비전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본문과 오늘

힘약한 세월, 정확한 하나님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371번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스라엘’은 2,567번 언급됩니다. 이를 합하면 약 3,000회에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이 965번, 아브라함이 289번 등장하는 것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빈도입니다. 이 수치만 보아도 야곱이라는 인물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도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언약의 계승 구조 속에서 야곱이 갖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언약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이르러 본격적으로 성취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았으나 힘약했던 삶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장이었지만, 성경이 증언하듯 구약의 족장 가운데서 유난히 힘약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창 47:9). 그의 고난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어, 형 에서와의 경쟁과 다툼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과 빼앗음으로 얻었고, 그 결과 형 에서의 미움을 사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란에서의 20년은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종처럼 섬기며,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의 결혼, 아내 간의 경쟁, 여종들을 통한 비극적인 가정사를 겪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지만, 그 길 역시 라반의 추격과 에서의 위협, 압복강가에서의 씨름과 부상이라는 두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도 야곱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딸 디나의 비극, 시므온과 레위의 보복으로 인한 또 다른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벰엘에 이르러서는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죽음과 장자 르우벤의 반역적 죄악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 편에 속해서 요셉을 후계자로 세운 결과 다른 아들들의 시기과 미움이 폭발하여,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야곱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잃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해 속이고 빼앗았던 그의 삶의 끝에 남은 것은 상실과 고통이었습니다. 요셉이 20년 만에 살아 돌아와 마지막 17년

을 함께 보냈지만,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힘약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기로 기능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역시 그의 삶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발꿈치’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은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로 발꿈치는 ‘아케브’이며,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 어근에서 파생되어 ‘발꿈치를 붙들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성경에서 발꿈치를 붙든다는 표현은 단순한 신체 동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아 대신하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태중에서부터 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성향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성경 속에서 수천 번 불리지만
그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볍지 않았다.
속여서 얻은 축복은
스무 해의 도망이 되었고
속임을 당한 시간은
또 다른 스무 해의 눈물이 되었다.
하나의 죄의 열매였고
하나의 기다림이었으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정확한 손안에 있었다.
용서는 있었으나
죄의 결과는 남았고
순종 없는 언약은 평안을 주지 못했다.”

둘째로, 이 이름은 성경의 전개 속에서 ‘속이는 자’라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에서를 “그가 나를 두 번이나 속였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말 역시 ‘발꿈치를 붙들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는 속임과 약탈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결국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의 자리를 욕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속이고 빼앗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취하며 이름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의 20년, 고난의 이유

야곱의 삶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는 그토록 고난과 상실의 세월을 살아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답은 그의 삶의 태도와 방식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야곱의 고난은 특별히 두 번의 20년으로 집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었더라…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창 25:29-34, 27:34-41)

약됩니다. 하나는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이며, 다른 하나는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채 살아야 했던 20년입니다.

먼저 하란에서의 20년을 보면, 야곱은 잠시 몸을 피하려는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을 의지했지만, 자신보다 더 교활한 라반을 만나 오히려 종처럼 부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섬겼으나, 결혼식 날 밤에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게 되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섬기게 됩니다. 이는 둘째였던 야곱이 첫째 에서의 자리를 속여 빼앗았던 행위가 그대로 되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속였던 방식 그대로 속으며, 총 20년을 고난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의 고난은 더욱 깊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방식 그대로,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을 편애하며 후계자의 상징인 채색옷을 입히자,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결국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힌 옷을 가져와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를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붉은 죽,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옷과 가장(假裝)이 그대로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속여서 20년을 고통받고, 다시 속임을 당해 또 20년을 고통 받습니다.

요셉 역시 집을 떠나 20여 년 동안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지만, 그 시간의 성격은 야곱과 달랐습니다. 야곱의 20년은 자신의 죄가 낳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요셉의 20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20년과 요셉의 20년이 맞물려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와 깊이 속에서 다루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야곱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죄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맺음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까지 없애시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용서를 가져오지만, 이 땅에서의 선택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남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속임과 술수로 언약을 이루려 했고, 그 선택은 그대로 고난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 언약을 선언하셨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붙잡으려 했고 그 결과 인생은 힘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뜻을 이루시지만, 순종의 길에는 평안이 있고 죄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화합하고 용서하며 함께 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은 평안으로 이루어집니다. ✨

청년부섬김조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최영광 목사 청년부 디렉터
ykyo5707@gmail.com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시 교회는 핍박 앞에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고, 성도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은 영광스러운 주님을 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엎드린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오른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이 장면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사람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열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위에서 있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며, 지금도 교회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고 붙드

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며, 그분의 손은 결코 교회를 놓지 않으십니다.

2026년 열린교회 청년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견디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겠습니다. 또한 주님께 받은 위로와 생명을 품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겠습니다.

2026년, 교회 한가운데 서 계신 주님의 열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열린교회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



목양1국

사역자
오세광 목사

국장
문현우

팀장
이요셉
나은비
김의정
조민선
이한영

목양2국

사역자
최영광 목사

국장
김재윤

팀장
김주표
이세린
김정환

목양3국

사역자
조일권 목사

국장
권오영

팀장
윤지혜
배지우
박형민
최은지

목양4국

사역자
김현희 전도사

국장
한수연

기능팀장
이혜연B
김은영



사역팀

새가족·찬양 담당 사역자 김다영 전도사 새가족팀장 이혜련 예배팀장 지희진 문화팀장 성윤하 찬양팀장 김요셉 재정팀장 김찬영



제18기 선교학교

3월 22일(주일) ~ 4월 12일(주일) 오후 6시 30분(4주간)

장소 소년부실(열린교육관 2층)

강사 남경우 선교사(1~2주 차, GMTC 원장)
안점식 교수(3주 차, 아신대 선교학)
이희조 선교사(4주 차, NK사역 선교사)

정원 100명
신청 3월 15일(주일)까지 열린교회 홈페이지 또는 교회 앱 온라인 신청
문의 임승빈 집사

제37기 새생명전도학교

3월 28일(토) ~ 4월 18일(토) 오전 10시(4주간)

장소 본관1층 예배실, 새가족실(4주차)

대상 청·장년 성장반 수료자 이상
신청 3월 27일(금)까지 열린교회 홈페이지 또는 신청함(본당 로비 비치) 통해 접수
문의 박미경 권사
※ 자녀 돌봄 제공

청소년겨울수련회 후기1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김아윤 청소년부2국

이번 겨울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전해주시신 설교를 들으며, 나는 이 말씀이 단지 한 번의 집회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느껴졌다. 말씀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 들려오는 음성처럼 마음에 깊이 울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삶과 선택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과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결정과 태도 속에 그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특히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큰 도전이 되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음을 내디뎠다. 그 모습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내 삶의 이해관계와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선택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익숙한 일상을 살아갈 때, 묵묵히

방주를 만들며 익숙함을 포기했던 노아의 모습은 내 삶을 돌아보게 했다.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충분히 편안함과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고난의 길을 걸어간 모세의 이야기는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이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분명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지 말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헌신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상황이 흔들려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삶,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이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이번 수련회는 나에게 그 다짐을 새롭게 해 준 은혜의 시간이었다. ☆

청소년겨울수련회 후기2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붙들다



윤준영 청소년부3국

이번 수련회는 내 신앙을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돌아보게 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동안 "주님은 살아 계신다"고 당연한 듯 고백해 왔고, 예배와 기도 자리에도 빠지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이어왔다. 그래서 스스로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고백은 하고 있었지만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음 깊은 곳에는 차마 꺼내 놓지 못한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말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가, 정말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물음이었다. 나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기보다, 애써 모르는 척하며 신앙적인 말로 덮어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그 흔들림은 특히 고3이라는 시간을 지나며 더욱 선명해졌다. 입시와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운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친구들, 신앙이 없어도 성적과 스펙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다. '왜 나는 믿는데도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생각이 반복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결과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흔들림이 마음을 채웠다.

수련회 둘째 날 들은 말씀은 그런 나를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맞추어 내 삶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깨달음은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큰 은혜로 느껴졌다. 하나님은 내가 더 뛰어나고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나를 자녀로 받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시간은 단순한 감동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었다. 나는 그동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중심에서는 주님을 뒤로 미루어 두고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 했던 교만함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붙들고, 성취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신앙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고3 생활 속에서도 나는 더 이상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평가하지 않으려 한다.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싶다.

이번 수련회는 내 믿음을 다시 바로 세워 준 전환점이었다. 흔들리던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셨다. 앞으로도 여전히 고민과 불안이 찾아오겠지만, 그때마다 이번 수련회에서의 깨달음과 결단을 기억하고 싶다. 오직 주님을 인생의 1순위로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

주요사역

- 1일(주일) 새가족환영축제
- 1일(주일)~2일(월) 청년부 목양3·4국 수련회
- 2일(월) 안양교도소 자매결연모임
- 6일(금) 백향목공동체 상반기 개강
- 7일(토) 온세대아침예배
- 8일(주일) 전도회 정기 모임
- 8일(주일)~29일(주일) 상반기 결혼예비학교(4주)/평신도 상담학교(4주)
- 11일(수) RTS 노회
- 14일(토) 강단기도 헌신자 모임
- 15일(주일) 정기당회
- 15일(주일)~4월5일(주일) 등불학교(4주)
- 21일(토) 예배섬김세미나/부모기도회
- 21일(토)~4월11일(토) 등대학교(4주)
- 21일(토)~5월9일(토) 신약아카데미(8주)
- 22일(주일) 정기제직회/새가족부 세미나
- 22일(주일)~4월12일(주일) 선교학교(4주)
- 23일(월)~4월5일(주일) 주바라봄 새벽기도회(14일)
- 28일(토)~4월18일(토) 새생명전도학교(4주)
- 28일(토)~4월25일(토) 학습·세례교육 및 문답(5주)
- 29일(주일)~4월4일(토) 고난주간
- 30일(월)~4월3일(금) 청년부 '고난주간 덜&더 캠페인'

새해말씀사경회 후기

말씀을 통한 성도의 회복된 삶



이기성 장년3교구
adiemus_@naver.com

‘바쁘다’라는 말을 머릿속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인, 연로하신 부모를 챙겨야 하는 장남, 남편, 세 아들의 아빠, 그리고 불안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의 반복입니다. 그런 일상에서도 주님에 대한 손을 놓지 않으려는 막연한 몸부림은 출근길 말씀 강의, 주일설교의 반복 청취, 신앙 강의 등을 통해 성도의 삶을 살 아내기 위한 은혜를 충전하지만 아쉽게도 은혜의 유효기간은 짧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안고 새해말씀사경회를 듣기 위해 교회에 도착해 자리에 앉으며 설교를 통해 더 나은 특별한 방법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평일 저녁인데도 교회를 가득 채운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 고심의 마음이 나만의 것은 아님이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 얻고 싶었던 특별한 방법이 과거와 지금도 내 가까이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제가 서 있음을 다시금 깨닫는 감사한 순간이 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로 시작되는 디모데후서 3장 15-16절입니다. 근심과 공허의 시간을 지나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선명한 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염원은 모든 성도의 바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성경의 중

요성을 다시 한번 견고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성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3일간의 사경회를 마치고 떠오는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모두가 같았지만, 바쁜 삶 속에서도 제 아버지는 성경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의자에 기대어 노안으로 인해 제법 커진 성경책을 코끝에 걸친 안경 너머로 리듬을 타듯 읽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라온 나는 기도와 말씀의 일상이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어떻게 아버지의 삶에 평안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까이 보았음에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음은 나의 합리화로 인한 나와 하나님의 소통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날 신앙이 없는 작은아버지가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밤새 기도하려고

더라. 맨날 하는 기도일 텐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을지 모르겠다”라고 가볍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작은아버지에게 나는 “처음 만난 사람과는 할 얘기가 별로 없지만 친한 친구와는 밤새 이야기해도 다 못 하잖아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해하겠다는 표정으로 끄덕이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간헐적 은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나의 친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이런 시간이 누적되고 일상이 되면 말씀 속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은혜가 이어질 것이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경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더 가까이 계시게 느끼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아침에 성경을 읽고 바쁘게 차를 몰아 출근합니다. 말씀 속에서 어떤 날은 머릿속에 가득한 물음표만 가득 남고, 어떤 날은 익숙한 말씀이 새롭게 들리며, 또 다른 날은 감사의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무던함과 일상의 성경 읽기가 언젠가는 근육처럼 쌓여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죄와 세상 논리에 무너지지 않고 은혜로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힘을 주리라는 기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

청소년겨울수련회 후기3

익숙한 교회에서 만난 특별한 은혜



유별하 청소년부1국

이번 겨울수련회는 교회 안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외부로 친구들과 떠나는 수련회를 기대했었기에, 교회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참여해 보니, 늘 오던 익숙한 공간인 교회에서 보낸 시간도 외부 장소 못지않게 충분히 뜻깊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평소보다 훨씬 깊이 몰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평소보다 더 집중할 수 있어 마음속에 남는 것이 많았다. 늘 보던 교회였지만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니 뜻깊었고, 내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레크레이션과 반별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마음껏 웃고 이야기 나눴던 순간들도 잊지 못할 것 같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조별로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실감했다. 특히 수련회의 마지막 찬양 시간은 이번 수련회에서 내가 느꼈던 가장 즐겁고 뜨거운 순간이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교회 사람들과 추억을 깊게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추운 날씨 속

에서도 교회 안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의 신앙의 중요성을 느꼈고,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알게 된 시간이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번 수련회에서 배운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학교생활과 신앙생활 모두에서 더욱 성실하게 노력하고 싶다.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선생님들과 교회 분들,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시간을 보낸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

추천도서

성경

인생의 바다에서 내리는 말씀의 빗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류 최고의 고전입니다. 왕과 선지자, 어부와 의사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진 저자들이 기록했음에도,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일관된 주제가 관통하는 것은 이 책의 궁극적 저자가 성령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를 성찰하게 하며, 때로는 위로와 소망으로, 때로는 책망과 교훈으로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인생의 바다에 말씀의 빗을 내리자"라는 2026년 교회 비전에 맞추어, 3월의 추천도서로 '성경'이 선정되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빗을 깊이 내리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부)

예배음악세미나 취재

말씀과 찬양, 균형의 예배를 말하다



‘찬양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 예전(禮典) 안에서 찬양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한 예배음악세미나가 지난 2월 22일(주일) 오후 4시, 본관3층 예배실에서 열렸다. 예배음악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담임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핵심 가치로 ‘균형’을 제시하며,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말씀과 찬양의 균형, 예배의 본질

목사님은 먼저 골로새서 3장 16절을 중심 본문으로 삼으셨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면함과 동시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 구절이 말씀과 찬양의 동시성을 보여 준다고 설명하셨다. 예배는 음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예배를 섬기는 도구임을 분명히 하면서 설교와 찬양 가운데 어느 한 요소만을 강조하는 흐름은 성경적 균형과 거리가 있음을 짚어 주셨다.

이어 음악의 기원에 대한 신학적 조명이 이어졌다. 목사님은 음악이 인간의 창작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주어진 선물임을 강조하시며, 율기와 이사야에 나타난 찬양의 장면들을 언급하셨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기뻐하시며, 백성을 지으신 목적 안에 찬양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셨다. 동시에 가인의 후손인 유발을 통해 악기가 세속적 향연과 연결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음악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거룩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왜곡된 수단이 되기도 함을 말씀하셨다.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예배 음악의 원리

목사님은 구약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다윗을 조명하

셨다. 다윗이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배 음악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음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수단으로 정립한 점을 설명하시며, 시편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선언이 모든 악기와 목소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함을 보여 준다고 강조하셨다. 성전 시대와 초대교회를 거치며 예배 음악은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점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정리하셨다.



역사적 흐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중세 교회는 웅장한 성당과 화려한 음악으로 예배 음악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종교개혁기에 이르러 음악 중심 예배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다. 특별히 칼빈은 과도한 음악적 장식을 경계하였다. 목사님은 특정 시대나 신학자의 입장을 절대화하기보다, 성경이 보여 주는 다양한 예배의 형태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며, 형식이 아니라 목적이 본질을 재차 말씀하셨다.

예배 음악의 성경적 목적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음악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임을 강조하셨다. 찬양은 신앙 고백이자 진리 교육의 통로로서,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셨다. 둘째, 음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영적 통로

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다만 이는 감정 자극이나 분위기 연출로 오용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말씀과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게 기능한다고 당부하셨다.

사역자의 영성, 공연이 아닌 예배

목사님은 음악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영성임을 강조하시며, 하나님은 뛰어난 연주자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다. 찬양팀과 반주자 역시 예배의 참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사역 이후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공연자 의식에 머무는 태도는 예배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계하셨다.

또한 찬양 인도자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학적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다. 설교자가 오랜 시간 말씀을 준비하듯, 찬양 인도자 역시 기도과 묵상, 가사와 멘트에 대한 깊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강의는 교만과 경쟁에 대한 경계로 마무리되었다. 찬양 사역은 주목받기 쉬운 자리이기에 더욱 겸손이 요구되며, 스타화와 비교 의식은 예배를 공연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셨다. 반주와 연주는 회중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섬김이어야 하며, 어떤 악기를 사용하느냐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느냐가 본질적 기준임을 재확인하셨다.

이번 세미나는 예배 음악이 공연이 아니라 예배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말씀과 찬양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우는 시간이었다. (편집부) ☆

교회소식



청년부 수련회

주제
- 목양3국: “교회 안,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정체”(롬 14:1~12)
- 목양4국: “말씀 앞에 서다, 세상 속을 걷다”(창 15:6)
날짜: 3월 1일(주일) ~ 2일(월)
장소: 광림수도원

세대를 잇는 온세대아침예배

일시: 3월 7일(토) 오전 7시
장소: 본관3층 예배실
특별순서: 취학부 특송 및 신학기 맞이 자녀 축복의 시간

제15기 온라인 교리반

일정: 3월 7일(토) ~ 5월 16일(토), 11주간
(마지막 주 시험 포함)
강사: 원종천 명예교수(아신대)
대상: 청장년 성장반 수료자 이상
모집: 3월 1일(주일)까지
정원: 150명
방식: 온라인(오리엔테이션·수료시험은 현장 진행)
오리엔테이션: 3월 7일(토) 오후 5시, 본관1층 예배실
문의: 김재현 집사

제3기 평신도 상담학교

일시: 3월 8일(주일) ~ 3월 29일(주일) 오후 6시(4주간)
장소: 본관3층 예배실
대상: 말씀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연합을 꿈꾸는 부부
모집 기간: 3월 3일(화)까지
문의: 열린심리상담연구소(010-8282-4204)
※ 자녀 돌봄 지원

제3기 결혼예비학교

일시: 3월 8일 ~ 3월 29일(주일) 오후 6시(4주간)
장소: 새가족실, 교육실(22일)
대상: 올해 결혼 예정자 및 결혼 1년 차 부부
모집: 3월 1일(주일)까지
문의: 윤희진 집사

등불학교

주제: “뒤틀고! 바르게 사는 지혜 안경 맞추기!”(시 1:1 - 2)
일시: 3월 15일 ~ 4월 5일 오후 3시(4주간)
대상: 유치부·유년부·초등부·소년부 학생
※ 등불학교 입학 자녀 학부모님은 1·2차 설명회 참석 필수

등대학교

주제: 잠언으로 배우는 삶의 지혜(잠 4:7)
일시: 3월 21일 ~ 4월 11일 오전 10시(4주간)
장소: 청소년1국-사랑홀(열린교육관 7층)

청소년2국-소년부실(열린교육관 2층)
청소년3국-예빛라이브러리(열린교육관 2층)
대상: 청소년부 학생
신청: 3월 8일(주일)까지

제18기 신약아카데미

일시: 3월 21일(토) ~ 5월 9일(토) 오후 5시(8주간)
장소: 본관1층 예배실
강사: 정창욱 교수(총신대)
대상: 청장년 성장반 수료자 이상(정원: 80명)
모집: 3월 15일(주일)까지
문의: 허신구 안수집사
※ 자녀 돌봄 지원

주바라봄 새벽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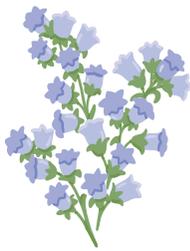
일시: 3월 23일(월) ~ 4월 5일(주일) 오전 5시 30분
장소: 본관3층 예배실

새가족

▶▶ 장년	▶▶ 청년
조영예(61)	정영숙(52)
김임열(34)	김건우(93)
이태진(75)	정단비(94)
홍종우(84)	이미선(76)
주은진(85)	강순희(44)
이용범(70)	정찬중(02)
	이다현(02)
	강은찬(07)
	고민성(98)
	배성준(99)
	나경현(85)

교역자 칼럼 | 경주자

하영, 하나님께 영광



한하영 유아부 전도사
gkshy78@naver.com

하나님께 영광, 저의 이름 뜻입니다. 어릴 때는 '하영'이라는 이름이 정말 싫었습니다. 언뜻 보면 남자 이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언니 이름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영'보다는 '하은'이 더 여성스러운 이름으로 느껴졌나 봅니다.

4대째 믿음의 대를 이어온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아담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교회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는 크고 작은 따돌림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은 아파트로 하나들 모여 집으로 갔지만, 저만 정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같은 반 남학생들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분수대와 놀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아닌, 농촌 마을의 작은 집으로 들어가는 저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갔더니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저를 더럽고 냄새 난다며 놀렸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웅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없이 대예배 설교를 들으며 그 어린 마음 밭에 살며시 작은 믿음의 씨앗이 푹 떨어져 자랐으나 봅니다. '하나님, 반 친구들이 그렇게 놀려도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저는 저의 아빠가 목사인 것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며 2학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따돌림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크고 작게 이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걸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을까? 나는 택함 받은 자녀일까?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신앙의 줄을 간간간당 붙잡고 있

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월,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저 여기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에게 그 세미나는 두려움과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세미나를 위해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첫 수련회입니다. 그곳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해 왔는지 아시지요. 저를 도와주세요."

2박 3일간의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첫 찬양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첫 시간 첫 찬양부터 마지막 찬양과 축도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 때 마음 속 따듯함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영아, 내가 너를 안단다. 하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니 홀로 분투했던 질문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벅차오름만이 남았습니다.

이후 영어영문학(교직 이수), 영어교육과,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임용을 준비하려던 중, 오래전부터 저를 부르고 계셨던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첫 사역지 열린교회에서 유아부를 담당하여 귀한 어린 영혼들과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그렇게 싫어했던 이름이 이제는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이름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겸손히 소망합니다. ☆

곰곰이 생각

'정상'을 알아야 하는 이유

글 · 그림: 나동훈
gongom2@designzip.co.kr

좋은 의사의 첫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디가 아픈지를 찾는 진단일까요?
어떻게 치료할지를 아는 처방일까요?

수치는 나왔는데,
음!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먼저 '정상'의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삶의 회복을 바란다면,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삶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보편적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따라와!
길은 여러 가지라고!



이 기준을 모르는 사람의 인도는
사이비 의사질이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우리에게 보편적 기준이 되는 성경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열심은 열심일수록 끔찍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
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러 함이라(디모데후서 3장 16-17절)

새 공과 소개 |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만나다

왜 신앙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은혜받지만, 막상 교회 문을 나서면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사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발간한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만나다』는 바로 이러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한 해답서입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복음의 정수'인 에베소서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책의 구성은 에베소서의 흐름을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1~3장)는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 '신학적 토대'를 단단히 다져줍니다.

이어지는 2부(4~6장)는 그 토대 위에 삶을 세웁니다. 교리는 반드시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구원받은 성도가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

사와 부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막연하게 착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에 맞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비결까지 담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딱딱한 신학 서적이 아닙니다. '아는 복음'이 '사는 복음'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길잡이입니다.

2026년 한 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넘어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실체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께 이 교재를 권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진리가 삶의 자리에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이끄는 힘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그 여정에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양사역위원회). ☆



한 컷 말씀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믿음일기

떠났지만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민예지 장년4교구
rubi1214@naver.com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친구들과의 교제가 좋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마음도, 교리에 관한 공부도, 기도 생활도 없는 채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 결혼 전에 믿으셨던 가톨릭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신앙 교육이 없었고,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한 제 신앙 습관들로 인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심 전까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살면 복을 주시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무서운 분'으로 오해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채 오랜 방향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주어진 자유를 맛보게 되면서 본격적인 방향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무살이 되던 해, 제게 무섭기만 했던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해 달라는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껴졌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들마저 점차 의지할 수 없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니던 교회를 떠나 예술에 심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맹장 수술을 하게 되면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하나님, 전 이런 수술이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제 옆에 있어 주세요'라며 오랜만에 기도했고, 이때 수술실로 가는 길목마다 저를 비추던 형광등 불빛이 마치 언제나 하나님은 제 옆에 계셨다고 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자기 품인 안전지대로 다시 돌아오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로우신 하나님 이시면서 동시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품이 참 좋았습니다. 또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심 이후 20대 시절 대부분을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것저것 도전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동시에 삶의 확신 없이 많은 불안함을 안고 방황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방향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성경개관학교, 금요일예배, 주일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며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방황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의 설교 말씀으로는 더 이상 이 의문이 해소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세워진 교회라고 알고 있던 열린교회에 2017년 1월 1일, 처음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씀이 '브니엘에서 아침을'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힘든 시기와 어려움이 지속될 때, 나는 내 혈기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구상하고 발버둥 치며 노력한 결과를 검토받듯 하나님 앞에 가져가 칭찬받기를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혈기로 만든 모든 좋은 경력과 경험, 그 외의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발끝에 매달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던 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찾던 말씀이 여기 있구나. 역시 이런 죄인인 나를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셔서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에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후 열린교회의 새가족반, 성장반, 교리반을 거치며 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무서운 하나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점검하시며 상벌만 결정하실 것 같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나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삶의 고됨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고, 사람을 섬기시며 내 죄를 대속하신 '사랑' 그 자체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복음이 점차 제 마음의 감격으로 자리 잡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를 제 모든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과정—직장을 얻고 적응하는 과정, 남편을 만나는 과정, 아내로서 적응하는 과정, 자녀를 갖고 출산하며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서 매번 성령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긍정적인 순간에도,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도, 마음이 혼란할 때와 화가 날 때에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 저와 대화하시며 제 마음을 읽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공활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로서 제게 원하시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앞으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해 온 이 삶의 과정을 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매사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기쁘게 살아가는 부모가 되고, 제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모가 경험한 이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도 좋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그 삶 속에서 이 아이가 회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에 합당한 부모로 살아가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사람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점차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다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삶과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주변 가정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추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희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한 김하림
이규희 최영광 조일권 오세광 김민성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해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 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최현성 박주광 원준식 광승훈 권세원 이해선 한하영

파송선교사

- A국:** 1 unit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나:**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일장일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일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일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일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일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교육관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교육관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교육관 5층 외국인실)
백향목 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테마학교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 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을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